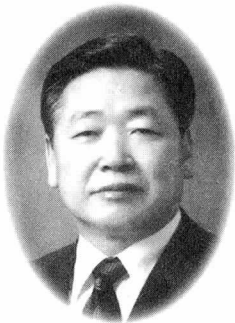


2001년 병원계의 소망



라 석 한
회 장

새로운 희망과 기대속에서 신사년(辛巳年) 새해가 밝았습니다.

새롭다는 것은 희망을 시사합니다. 과거가 아무리 힘들었다
라도 새롭게 시작되는 하루, 새롭게 시작되는 한 주, 새롭게
시작되는 한 해는 희망합니다.

의약분업 시행, 의료보험 통합, 실거래가 상환제 등 병원경영환경은 급속히 변화

지난 한 해를 돌이켜 보면, 의료계는 그 어느 해보다 힘든
한 해를 보냈습니다.

의약분업으로 인한 의료기관 휴·폐업사태로 전국의 모든
병원들이 장기간에 걸쳐 극심한 몸살을 앓았고, 그 거센 풍랑
을 헤쳐오느라 우리 모두의 몸과 마음은 지칠대로 지친 상태
입니다. 병원 휴·폐업 사태로 인한 직종간의 갈등과 진료수
입 손실은 앞으로 수 년동안 병원경영에 부담을 주게 될 것
으로 우려됩니다. 또한 실거래가 상환제와 의료보험 통합, 거

대 보험심사기구의 출현 및 선택진료제 등도 병원경영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. 이와 같이 병원의 경영환경은 급속히 악화되고 있으며, 이와 같은 여건속에서 과거의 낡은 사고의 틀에서 탈피하지 못하는 병원은 생존할 수 없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.

2001년, 급변하는 의료환경에 신속히 대처해야만 병원은 생존

의료대란의 위기는 병원들에게 급변하는 의료환경에 신속히 대처해야만 생존할 수 있다는 교훈을 안겨줬습니다. 이런 보건 의료환경 변화의 가속화는 전국 병원들에게 새로운 돌파구를 찾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. 그럴수록 우리는 하나로 뭉쳐 이 난국을 타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. 우리가 좌절하지 않고 하나로 힘을 모은다면 우리는 어떤 난관도 극복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. 금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던 의료법인에 대한 지방세 부과를 우리가 힘을 모아 저지한 것이 그 예라 하겠습니다.

병원협회는 지난 해 사업목표를 “새 천년, 병원계 위기 극복의 해”로 정하고 병원세제 및 금융지원제도 개선, 의료보호진료비 지급지연 해소, 의료보험 수가구조 개편 등 병원경영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정책을 적극 추진하였습니다.

그 결과, 의료법인의 고유 목적사업 준비금을 손비로 인정케 했고, 3천여 억 원의 의료보호 진료비 체불액 해소에 기여했으며, 의료보험 재진료 인상, DRG 지불제도 시행의 유보, 중소병원의 범위를 상시 근로자 200인 미만 또는 매출액 200억 원 미만으로 확대하는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을 촉구, 대부분의 개인병원이 중소기업 범위에 포함돼 각종 세제 혜택을 받을

우리가 좌절하지 않고 하나로 힘을 모은다면 우리는 어떤 난관도 극복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. 금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던 의료법인에 대한 지방세 부과를 우리가 힘을 모아 저지한 것이 그 예라 하겠습니다.

의료법인의 고유 목적사업 준비금을 손비로 인정케 했고, 3천여억 원의 의료보호 진료비 체불액 해소에 기여했으며, 의료보험재진료 인상, DRG 지불제도 시행의 유보, 중소병원의 범위를 상시근로자 200인 미만 또는 매출액 200억 원 미만으로 확대하는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을 촉구, 대부분의 개인병원이 중소기업 범위에 포함돼 각종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했습니다.

수 있게 했습니다.

2001년, 국민에겐 양질의 의료서비스와 병원에겐 병원중심의 의료정책이 추진됨

문득 이런 상상을 해 봅니다.

【환자의 편의를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정부의 방침에 따라 병원내 외래조제실은 예전과 같이 존속됐다. 환자들은 각 개인의 선택에 따라 병원내 외래조제실을 이용할 수도 있고, 병원밖의 약국을 이용할 수도 있게 되었으며 주사제도 의약분업 대상에서 제외돼 그 동안 환자들이 가장 불편하게 생각했던 부분이 해소되었다. 이제 의약분업은 정착되었으며 병원들도 경영에 안정을 찾을 수 있게 되었다.


의료보호 진료비 체불액은 완전히 해소되었고, 의료장비의 관세가 인하되었다.

정부는 의료공급의 중추적 역할을 병원이 담당하고 있음을 인식하여 병원중심의 정책을 추진하게 되었으며, 국민들에게 필요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비용과는 상관없이 시술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. 따라서 병원에서는 오로지 환자에게 충실할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됐다.】

병원계가 힘을 합친다면 산재해 있는 문제들은 반드시 해결될 것이다

잠시나마 2001년 병원계의 소망을 꿈꿔 봤습니다. 이것이 단지 꿈으로 머물러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. 우리가 힘을 합

친다면 안 되는 일은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. 앞에서 언급했듯이 2001년, 병원계에 산재해 있는 문제들, 병원 외래조제실 존속과 주사제 제외 등 약사법 개정·선택진료제 개선·의료장비 관세 감면·산재보험요율 인하·e-business 추진 등은 우리 병원계가 뜻을 함께 모아 꼭 해결해야 할 문제들입니다.

2001년 새해에는 모든 국민들에게 양질의 의료가 제공되며 병원들이 안정되고, 쾌적한 환경에서 진료에 전념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.  2001

병원 외래조제실 존속과 주사제 제외 등 약사법 개정·선택진료제 개선·의료장비 관세 감면·산재보험요율 인하·e-business 추진 등은 우리 병원계가 뜻을 함께 모아 꼭 해결해야 할 문제들입니다.